



별 헤는 밤의 작은 꿈

잠 못 드는 밤, 숲속 별빛을 찾아 떠나는 포근한 발걸음.



잠이 오지 않는 밤

뒤척여도 눈은 말뚱말뚱, 작은 방 안으로 달빛만 가득합니다.



밤 숲길을 걸어요

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을 밟으며 고요한 숲속으로 걸어갑니다.



하나씩 세는 별빛

언덕 바위에 앉아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가만히 짚어 봅니다.



스르륵 쏟아지는 잠

별들을 가만히 헤아릴 무렵 커다란 하품이 몽실몽실 피어납니다.



별빛 아래 단잠

달콤한 꿈속에서 온 밤을 비추는 별들과 함께 잠듭니다.